



제2384호 **연중 제34주일 (성서 주간)**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예수 그리스도 왕권의 실현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이며,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진리,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열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섬김과 봉사의 왕권이 이 땅에 확립되기를 염원하며 기도하는 축일입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1925년 비오 11세 교황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강한 권력을 가진 왕과 왕비가 다스리는 전통적인 왕국들이 몰락하고, 그 대신에 나치정권과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유럽을 통치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비오 교황님은 이 새로운 '이념들이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와 존엄성을 유린할 수 있는 가공스러운 통치수단이 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새롭게 부상하는 이들 왕국들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왕의 장엄축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념들보다 예수님이 더위에 계심을 온 인류가 깨닫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임금이라는 진리가 시대를 초월해 이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면서 참된 자유와 진리, 정의와 공정이 정착되고 꽃피는 평화로운 세상이 건설되기를 염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북한의 독재 지도자들은 무신론을 내세우고 있고, 푸틴은 올해 OECD 정상회의에서 '자유는 낡고 진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부정할 때에는 인간 존재와 생명의 원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이 내적 힘을 잃고 공허해집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고통을 겪을 때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 본질, 인간 존재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이념이나 사상이 우리 모두의 양심과 지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족보다 국가가 더 우위에 있음을 인식하며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가를 안전하게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도록 외쳐야 합니다. 외부현실과 내면세계가 잘 소통되고 통합된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두 세계를 이용하여 정신적 성장, 사회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불행히도 두 세계가 크게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환상으로서의 사랑뿐 아니라, 환상 속의 인간관계, 환상의 세상을 꿈꿉니다. 어딘가에 유토피아가 있다고 믿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미증유의 세계로 사회를 이끌어 혼돈 속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세력에 이끌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심을 목청을 높여 선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지 않거나 침묵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 정부가 총탄을 난사하며 홍콩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탈취하려는 폭압에 맞서 길거리에서 유혈투쟁을 벌이고 있는 760만 홍콩시민 중의 300만 시민들의 피와 눈물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강력한 유비무환의 자세로 국가를 수호하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유와 정의의 왕권이 온누리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권창현 요셉 신부 | 의령성당 주임



무서버라!

초췌한 모습의 나그네가 한밤중에 깊은 산속을 해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모습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얼마 후 ‘피막’(避幕:예전에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잠시 안치하여 두던 마을에서 떨어진 외판집을 이르던 말)을 발견하자 스스럼 없이 들어갑니다. 괴기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피막’ 안, 상여가 놓여 있고 낡은 관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사이에 주저함 없이 픽 쓰러져 잠이 듭니다. 잠시 후, “이히히 히히히~” 소름 끼치는 귀신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도 나그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 옆으로 돌아 눕습니다. 머쓱해진 귀신이 따라가서 다시 겁을 줘보지만 도무지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뿔이 난 귀신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넌 귀신이 안 무섭냐!”

나그네 “귀신이 뭐가 무섭냐?”

삐친 귀신 “그럼 뭐가 무서운데?”

나그네 “빛쟁이가 제일 무섭지. 지금 빛쟁이 피해서 도망가고 있잖아. 나 자련다.”

귀신 “으흐흐, 사실 나도 빛쟁이에게 시달리다 자살한 귀신이야.”

귀신과 나그네는 서러운 마음에 서로 껴안고 평평 울었다고 합니다.

구전 민담입니다. 빛쟁이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빛이 있으십니까? 빛만 없어도 살만하죠. 저도 빛이 ‘조금’ 있습니다. 마음 빛과 기도 빛 그리고 금전 빛. 신문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가게 빛이 2018년도에 1,530조를 넘어 섰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보다 빛이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경제생활로 가게 빛도 줄여야겠지만, 건전한 신앙생활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빛, 기도 빛도 줄여야겠습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주일 진례

입 당 송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본 기 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제 1 독 서 2사무 5,1-3

화 답 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 2 독 서 콜로 1,12-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야! ◎

복 음 루카 23,35L-43

영 성 체 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홀아비 정상情想

배의순 요한 보스코 • 시인

“밥이나 먹었나?” 우리는 가까운 친구, 혹은 친지를 만나거나 통화를 할 때, 첫마디가 “밥 먹었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오랜 인사말이기도 하다. 사람은 살기 위해 하루 세 끼를 먹고 영양을 골고루 채워야 한다. 실제로 코리아의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6·25전쟁 이후 혹독한 시절을 겪은 경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듯 먹는 문제를 먼저 묻는 이유는 생활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먹는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먹는 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뜻이다. 그것이 우리의 슬픈 역사이기도 하다.

또 다른 문제는 혼자 살면 외롭고, 외로운 것은 좋지 않다고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래 즐거움과 외로움은 빛과 그림자처럼 어느 한쪽만 존재할 수 없다. 즐거움이 있으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아니까 즐겁다고 느낀다. 나이가 들어 우울해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불만과 피해 의식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신에게 묻고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가 칠백 년 전에 쓴 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인생이 주는 위대한 선물이다. 산술논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홀로 사는 내게 어찌 남이 내 행복을 가져다 주겠는가. 오래 살면 천덕꾸러기가 되어 인간의 본성을 잃어가는 것은, 돌아서면 바로 눈앞에 보인다. 온갖 장애나 병고에 시달리면서 어쨌든 세상을 살아야 한다. 다만 사람은 후회할수록 삶의 질은 떨어진다. 젊어 봤으니 늙어도 봐야죠.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더욱더 부드럽게 맞이하게 한다. 사람의 생명은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후반전이다’는 말이 있다. 후반부에는 굳이 똑같은 실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경험의 힘이다. 운명은 변하기 마련이다. 슬픔을 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겪어본 사람은 안다. 사람은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본질적으로 생활습관이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득 황창연 신부님의 저서〈사는 맛 사는 멋〉에서 ‘노인 십계명’이 생각난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자기답게 존재하고 싶다. 이제는 먼저 한발 물러서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



육아도움 기대했던 시어머니 너무 섭섭합니다

Q

5살짜리 쌍둥이 엄마입니다. 매일 매일 전쟁처럼 치러지는 직장육아와 가사에 지쳐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부모님 두 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소녀가장으로 두 동생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처음 뵈던 날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을 따라 누런 들판의 논을 지나 넓은 마당이 있는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엌에서 달려 나오시는 시어머니의 그 넉넉한 웃음과 맛있는 냄새, 그리고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 저는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상'을 받아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제 손에 풋고추, 깻잎, 파, 토마토를 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한 후 모든 것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3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쌍둥이 육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이었습니다. 잦은 몸살을 무릅쓰고 무리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119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무조건 잘 먹고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면 "자식은 어미가 키워야 한다."고 당신 생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부탁하면 "깻잎 따야 한다, 고추 따야 한다, 마늘 캐야 한다."고 오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죽을 지경인데 고추와 깻잎이 손자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기대했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일찍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도 원망스럽습니다. 남편은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프고 지친 상태인 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드디어 제가 폭발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시키느라 동동거리는 제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저도 모르게 "야 이 개XX야!"라고 악에 받쳐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불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화가 올라옵니다. 주위에서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지만 제 마음만큼 해 주지 않을 것 같고 미덥지 않아서 못 부릅니다. 제가 문제가 많습니까?

A

쌍둥이 육아, 정말 어려우시겠습니다. 거기다가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으니 거의 불가능한 수준을 감당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려다가 넘어지셨군요. 첫인상이 푸근했던 시어머니께 많은 기대를 하셨군요. 농사일은 모든 것이 때가 있어서 그때를 무시하고 손자 돌보러 오시기 쉽지 않으신 것 같군요. 내 자식이 들판의 고추, 깻잎보다 뒤로 밀리는 것이 당연히 이해도 되지 않고 서운하겠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나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 당신은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오셨나 봅니다.

지금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고 싶은 것 맞지요? 인생에서 단계마다 중요한 과업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지금은 그 어떤 일보다도 쌍둥이를 잘 돌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부부가 맞벌이하고 계시니 한 사람의 수입 전부를 당분간 쌍둥이 육아에 투자하세요. 남을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분간 하원 도우미 따로, 가사 도우미 따로 모두 도움받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70% 정도 기대에 부응하면 만족하십시오. 퇴근 후에도 최소한의 집 관리만 하세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남편에게 건강하고 깔끔한 부부싸움을 거세요. 먼저 맛있는 것을 함께 먹은 후 대화를 시작합니다. '○○를 꼭 해주세요.' '□□는 하지 말아주세요.' 장황하지 않게 짧막하게 3분 이내로. 혹시 대화 중에 화가 올라오면 물을 한잔 마십니다. 그에게도 물을 한잔 권합니다. 물 한잔은 올라오는 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보고 배운 것이 없고 미숙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아이들은 엄마의 표정을 보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수준을 결정합니다. 엄마가 웃으면 '아! 내가 좋은 애구나!' 엄마가 화내면 '아! 내가 나쁜 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좋은 표정이 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는 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건강한 엄마만이 자녀를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김홍숙 세레나 소장의 '가정상담' 연재를 마칩니다. 소장님께서 2008년 5월 가톨릭마산 창간 때부터 가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언을 주셔서 가정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현지본당 체험기

이창범 라자로 • 구암동성당 휴학신학생

찬미 예수님! 저는 구암동성당 모라토리움 신학생 이창범 라자로입니다. 올해 교구 모라토리움 프로그램에 따라 1월부터 7월까지 필리핀의 바기오(Baguio)라는 도시에서 어학을 공부하고,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바기오에서 3시간 반가량 떨어져 있는 만카얀(Mankayan)에서 필리핀 신자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10월 22일에 귀국하였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9개월간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지내는 동안 느꼈던 저의 개인적인 체험들을 나누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먼저, 필리핀에서 지내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신앙을 받아들인 지 40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정오나 오후 6시가 되면 삼종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이나 큰 마트에서도 삼종기도 종소리가 들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작게 삼종기도를 외우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는 신앙이 삶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음을 체험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저의 신앙은 제 삶과 얼마나 이어져 있는지 되묻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냈던 본당은 30개가 넘는 공소들이 있는 곳으로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같은 공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에 미사에 늦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항상 신자분들은 미사를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웃으면서 늦게 도착한 신부님과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필리핀 신자분들이 미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배울 수 있었고, 저 스스로도 미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필리핀에 가기 전까지, 저는 한국에서 쉽게 평일 미사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 미사 자체를 큰 기쁨으로 생각하기보다 당연하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통해, 매일 미사를 통해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삶이, 신자로서 느낄 수 있는 큰 행복이자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신부님과 함께 지내면서, 사제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공소가 많은 필리핀 현지 특성상, 한국에서와 같은 주기적인 병자성사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달에 한 번 신부님이 방문하면 그때 갑작스럽게 병자성사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부님은 뒤의 일정을 미루면서도 기쁘게 그러한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내가 사제가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한 일정과 다르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저는 쉽게 ‘그렇다.’ 라고 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고자 하는 사제는 어떠한 사제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도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에서의 9개월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통해 저 스스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사제의 삶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중한 체험들을 잊지 않고 제 신앙의 밑거름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나날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구장 동정

견진성사

일사: 11월 24일(주일)

장소: 월영성당

일사: 12월 1일(주일)

장소: 덕산동성당

교구/본당

성모신심 묵상회 6주간

장소: 평거동성당(진주)

일사: 11월 5일(화)~12월 10일(화)

강사

4주: 11월 26일(화) 신동규(다미안 마리아) 신부

5주: 12월 3일(화) 강영구(루치오) 신부

6주: 12월 10일(화) 박지영(실비아) 수녀

미사 주례: 주용민(리노) 신부

주교님과 함께하는 청년 간부연수

일사: 12월 7일(토) 13:30~8일(주일) 13:30

※ 파견미사 12월 8일(주일) 11: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교구·지구 연합회장단, 본당 청년회 간부, 사도직 단체장, 가톨릭학생회 회장단(본당 별 2명, 단체별 1명)

참가비: 1인당 5만 원

신청마감: 11월 24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고3 피정

일사: 2020년 2월 8일(토) 10:30~9일(주일) 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제: 화해와 용서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참가비: 1인당 6만 원/교구사목비 면제본당 3만 원

신청마감: 2020년 1월 29일(수)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임마누엘 장학회 임시이사회

일사: 11월 28일(목) 11:00

장소: 교구청

문의: 055·249·7016~7

소공동체 연구위원 모임

일사: 11월 28일(목) 11:00

장소: 교구청

문의: 055·249·7021~3

청년성서가족 강의

일사: 11월 29일(금) 20:00 ~ 21:00

장소: 교구청 지하 성전

주제: 모세오경 시리즈1

강사: 주효상 알렉산델 신부

대상: 하느님을 사랑하는 누구나

문의: 055·249·7065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사: 12월 1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1·9207·8856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첫째 주(화) 10:30 교구청

창원: 첫째 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첫째 주(월)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전례와 꽃 예술학교 졸업작품 전시회

일사: 12월 7일(토) 11:00~8일(주일)

장소: 경남장애인 종합복지관

문의: 성소국 055·249·7061, 010·9088·4864

정의평화위원회 '주전장' 영화(다큐)상영

일사: 12월 9일(월) 19:00

장소: 신안동성당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병원 미사 안내

마산: 삼성병원 매주(금) 18:00

본관 2층 1회의실(접수·수납 창구 맞은편)

창원: 파티마병원 매주(수) 16:00

매(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매주(수) 18:00 지하 1층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주: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암센터 지하1층 천주교 원목실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채용공고

채용분야: 주방 직원 1명(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사무실 직원 1명(출퇴근)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신부 추천서(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마감: 12월 15일(주일) 17:00 (방문, 우편,

e-mail / 우편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 분까지)

면접: 추후 개별 통보

문의: 055·221·1891~2, cecomasan@gmail.com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 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성소자 모임 (개별방문 상시접수)

일사: 11월 23일~24일, 12월 24일~25일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피정

일사: 12월 23(월) 16:30~25일(수)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참가비: 19만 원(대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9877·4739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 border="1"> <tr> <td>2월 1일</td> <td>이스라엘 요르단</td> <td>12일</td> <td>439 만원</td> </tr> <tr> <td>2월 10일</td> <td>유럽 3대 성모발현지</td> <td>13일</td> <td>395 만원</td> </tr> <tr> <td>2월 12일</td> <td>유럽 3대 성모발현지</td> <td>13일</td> <td>395 만원</td> </tr> <tr> <td>2월 13일</td> <td>이스라엘 이탈리아</td> <td>12일</td> <td>439 만원</td> </tr> </table> 분도여행사 02.852.8525	2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439 만원	2월 10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2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3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39 만원	 마르코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 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010-5150-2625 GCA 골프피팅 스튜디오 클럽/스윙/퍼팅 분석·맞춤 클럽 제작·기성클럽 피팅 클럽 수리·그립/샤프트/헤드/골프화 스파이크 교환 마산회원구 봉양로9 온골프존빌딩 (신세계백화점 앞 삼각지공원 건너편) https://blog.naver.com/golfgca ☎ 055.282.1872 (18홀 72타) 김중환 안토니오 창원대학교 체육학 박사수료	 가톨릭신문 투어 ▶ 1/8 터키 그리스 13일 399만원 ▶ 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1/27 발칸반도 12일 355만원 ▶ 1/28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75만원 ▶ 2/15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68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2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439 만원																
2월 10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2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3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39 만원																

렉시오 디비나 피정

내용: 유덕헌 아바스와 최재용 원장이 함께 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기 타

제주 성지 순례 3일(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시: 12월 17일~19일, 2월 25일~27일,
3월 20일~22일, 3월 24일~26일
장소: 제주성지 7곳(성지해설)
문의: 064·805·9689
해외순례: 2020년 3월 2일 그리스·터키 12일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는 관광 및 성지 안내와 함께 차량, 호텔, 팬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1일(월)~2020년 2월 7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정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입학정원: 2,912명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입학상담: 053·850·2580

중동성당 제31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반재균(사도 요한)
사목부회장(남성): 강종수(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정종호(방지거)
사목부회장(여성): 원윤숙(사라)
총무위원회: 김은수(마리오)
기획관리위원회: 허정은(소화데레사)
시설위원회: 박재훈(아우구스티노)
전례위원회: 권명화(마리아 막달레나)
소공동체위원회: 편점숙(미카엘라)
선교위원회: 천정순(요셉피나)
전입담당위원회: 강나현(아르미나)
성경위원회: 진정순(안토니아)
교육홍보위원회: 이재원(프란치스코)
복지위원회: 김정남(로사리아)
환경정의평화위원회: 한승식(미카엘)
청소년위원회: 장혜진(로사)
가정사목위원회: 김몽상(마테오)
시메온학교: 이미옥(루치아)

진영성당 제31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김승원(마오로)
사목부회장(남성): 장도영(마테오)
사목부회장(여성): 손요안나(요안나)
총무: 안정준(바오로)
전례분과장: 최효찬(프란치스코)
교육분과장: 한상배(바오로)
선교분과장: 송계용(바오로)
구역분과장: 한선주(제노베아)
재경분과장: 김종호(요한)
사회복지분과장: 최애숙(말세리나)
시설관리분과장: 이흥기(요한)
청소년분과장: 윤현철(치릴로)
홍보분과장: 박계현(프란치스코)
가정사목분과장: 손수향(가타리나)
공원관리분과장: 박준규(아우구스티노)
감사: 이희근(미카엘)

사천성당 제2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조복래(마리오)
남성부회장: 강옥수(요셉)
여성부회장: 전수옥(나탈리아), 장정애(요셉피나)
총무분과장: 최재권(경향 프란치스코)
복음화분과장: 안재완(프란치스코)
전례분과장: 조기효(프란치스코)
청소년분과장: 박유경(안나)
구역분과장: 백현숙(소화데레사)
사회복지분과장: 박영옥(엘리사벳)
재경분과장: 김경렬(파스칼)
시설관리분과장: 이준기(미카엘)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11월 25일(월) 19:00	월남동성당	시련을 당할 때마다 구원되리라(집회 33.1)	시문과 데레사 (삼성산성지 음악봉사자)	이영민 신부(베드로)	010·5072·5612
창원지구	11월 25일(월) 19:00	반송성당	성사를 통한 은총	최재상 신부(마티아)	최재상 신부	010·9421·3377
진주지구	11월 25일(월) 19:30	옥봉성당	성령안에 일치	김순덕(헬레나)	이재혁 신부(안드레아 아벨리니)	010·9677·4224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리자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내용	문의
한국의방선교회	해외 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성소국장 신부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12/3 (289만원) 1/22구정 (299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299만원) 1/9, 3/4 ◆ 설특선 아태리 일주 9일 (299만원) 1/21 ◆ 성모발현지 13일 11/26(379만원), 2/3 (38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정용근 내과 의원 관절·류마티스 전문병원 통풍, 일반내과, 자가면역질환 창원시 중앙동 한서빌딩 2F 055.713.7771 원장 정용근 프란치스코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쌍용자동차 마산 제일대리점 (마산역 앞) 태도건 다니엘 010.2232.1456 티볼리, 코란도, 렉스턴 스포츠 칸 2020년형 출시·노후 경유차 지원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도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	--	--	--



마지막 이야기

아빠 아버지

신은근 바오로 신부 · 신안동본당 주임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 복음서에 무려 170번 등장한다. 마르코 4번, 루카 15번, 마태오 42번, 요한 109번. 이렇듯 많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느님은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율법의 하느님보다 사랑의 하느님이 먼저란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런 까닭에 복음(기쁜 소식)이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안다. 별주는 부모보다 애정을 쏟는 부모가 먼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서는 아빠(Abba)라는 말씀도 남기셨다.(마르 14,36) 원문은 아람어다. 그분께서 아람어를 쓰셨기에 발음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 히브리 문헌에서 하느님을 아빠라 부른 대목은 없다고 한다. 주님을 아이 말이나 애칭으로 부르는 건 경망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인데도 예수님께서선 아빠라는 용어를 쓰셨다.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하셨기 때문이다. 육친의 아버지로 느끼셨던 것이다. 아빠라는 표현 속에 담긴 따뜻한 가르침이다.

예수님께서선 아람어를 쓰셨다.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시리아(Assyria) 말이다. 아시리아는 빛을 뜻하는 아슈르(Asshur)가 어원이며 지금의 시리아(Syria)는 그들의 후예다. 아시리아(Assyria)에서 As를 떼버린 것. 히브리인은 이들을 아람(Aram)족이라 했다. 그들의 문자가 아람어로 불리게 되는 이유다. 훗날 아시리아를 정복했던 바빌로니아도 아람어를 사용했고 뒤이어 등장한 페르시아는 아람어를 공용어로 선언했다. 그리스와 로마가 지배할 때도 민중 언어는 여전히 아람어였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도 아람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어는 전례 용어로만 남아 있었다.

신앙인은 주님의 기도에서 몇 번이나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선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셨다.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요한 5,18) 이후 사도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전했기에 주님의 기도는 미사 전문에 남을 수 있었다. 아빠는 교회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4세기부터 수도원장을 아바스(Abbas)라 했고 교황의 라틴어 표기도 파파(Papa)다. 우리말 아빠도 예부터 사용하던 아바마마의 아바가 원형이라 한다. 아바라는 호칭으로 아버지를 불렀으며 아비란 말의 어원이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 흔적으로 보면 아빠가 아버지보다 오래된 단어인 셈이다.



산상 설교, 프라 안젤리코, 1436 - 1443, 산 마르코 미술관, 피렌체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의 '성경의 세계' 연재를 마칩니다. 신부님께서서는 2008년 5월 가톨릭마산 창간 때부터 '성경의 인물'을 시작으로, 2013년 4월 28일부터 성경의 인물과 사건은 물론, 성경과 관련된 역사, 문화, 전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성경의 세계'를 연재해 주셔서 하느님 말씀에 친밀히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